



이웃을 활용한 지역문화 예술공간 활성화 방안 - 수원시 '소현문'을 중심으로

「유럽의 전통과 문화유산」과 「뮤지엄 콘텐츠와 브랜딩」 강의페어링

문화콘텐츠학과 202021802 김선빈 - 안지연교수님 지도

연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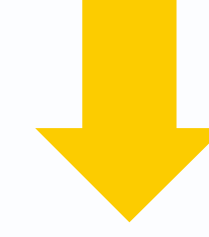
<유럽의 전통과 문화유산>
'유럽의 문화정책'

<뮤지엄 콘텐츠와 브랜딩>
'지역 문화 예술 공간의 재브랜딩'



= 유럽의 문화정책을 활용한 지역문화 예술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예술도시를 많이 보유한 유럽 국가들,
우리나라와 무엇이 다를까?”**



**지역 문화 예술공간의 브랜딩, 마케팅 활성화
차이가 문화예술향유의 차이를 만든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형 예술공간의 성과주의적 접근과의 대비를 통해, 민간주도형 지역문화예술공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민간주도형 예술공간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 운영 중이며 더 깊은 변화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수원시는 2021년 12월부터 법정문화도시이다. 문화도시라는 이름에는 수원시민이 관객을 넘어 문화예술에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원시 우만동에 위치한 '소현문'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주도형 문화예술공간의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유럽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민간주도형 지역문화예술공간을 사례분석하고, 수원시 우만동에 위치한 '소현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간주도형 예술공간 인프라가 부족한 수원시에서 어떻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더욱 '이웃'이라는 소속감을 가지며 연대하여 지역 사회의 통합적기능까지 갖추어 갈 수 있는 지에 대해 '소현문' 운영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지역문화예술공간이 지역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벨기에 브뤼셀의 레 알 드 샤에백의 '이웃', 이민과 추방 등의 질곡을 겪는 이주민을 '이웃'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의 개입과 참여를 주도해 문화예술공간을 재창조했다. 벨기에 뿐만 아니라, EU는 문화슬로건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를 중점으로 글로벌 문화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도 우리도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이 갖는 '관계'에 주목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 문화적 혼성과 다양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의미로 접근하며 문화민주주의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본론

해외 사례 연구



1) 영국의 '어셈블'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맥락을 담아내는 접근법과 예술, 기술, 건축이 융합된 실행 방안을 통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해결책 제시



2) 프랑스의 '이시레물리노'시의 '레 작슈' 아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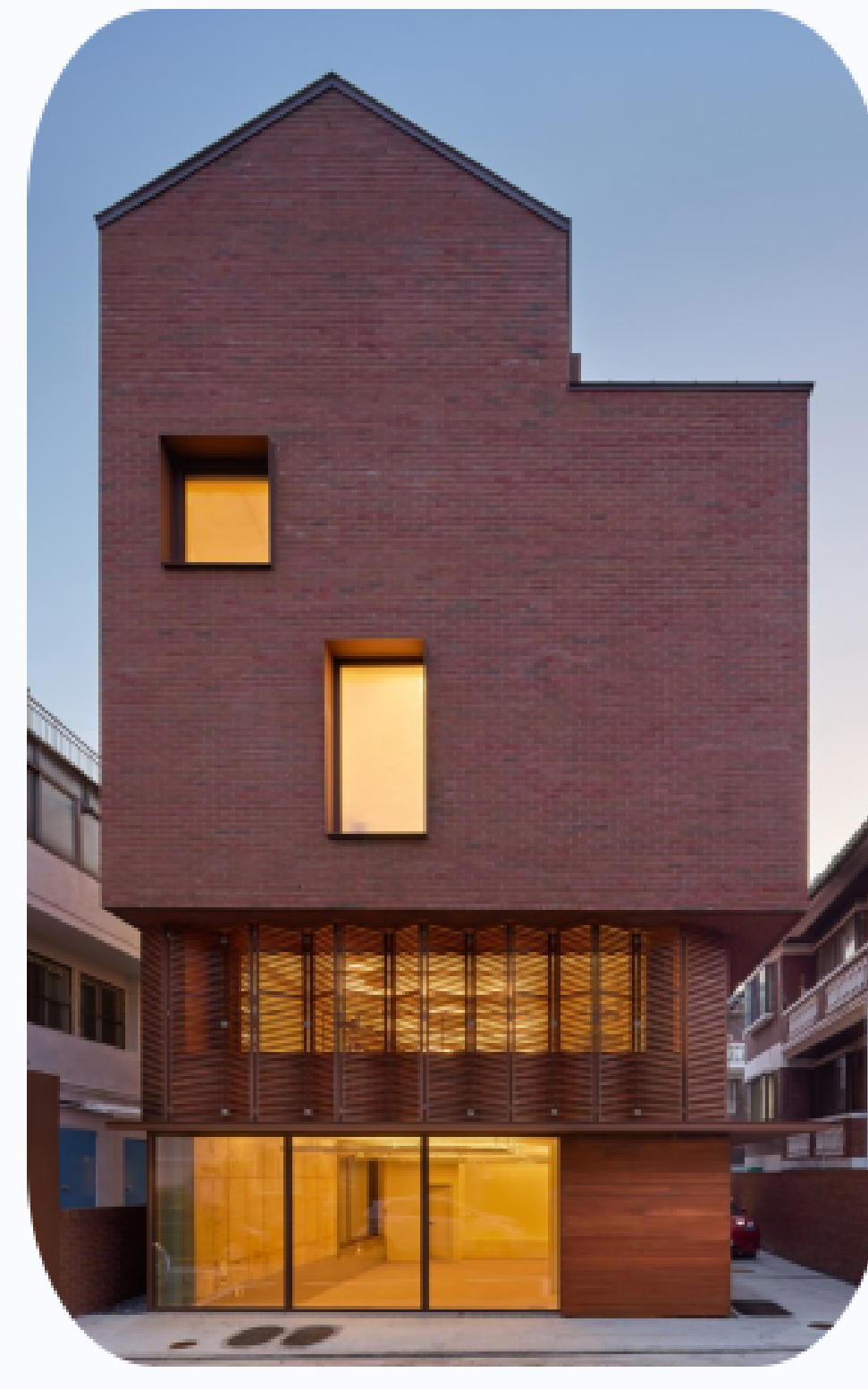
한국인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 슬럼화가 된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와 예술가가 만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3) 독일의 '쿨투어브라우어라이'

폐허가 된 양조장을 젊은 예술가 집단의 활동으로 만들어져, 문화예술공간에 서비스업 등 일상적 삶과 문화적 요소를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

국내 사례 연구 & 심층면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현문素顯門'

“문화의 터를 가꾸는 대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예술”

지역사회에 전문 예술 매개 공간으로써 큐레이팅이나 창작에 도움을 주는 공간. 2023년 7월 시작으로 4개월차 운영중. 5주 단위로 전시 개최와 함께 낭독회, 매주 목요일 '소현서재'라는 독서토론모임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하는 공간

소현문 운영자와 11/5, 11/14 2번의 면담 3개의 주요 질문과 10개의 하위 질문으로 인터뷰식 심층면담 진행

소현문 심층 면담 결과 요약

1.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동기와 목적 - 지역사회에 있어서 일종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서 양질의 예술을 제공한다.
2.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현황 - 접근성이 낮은 공간이다. 온라인 홍보도 미약한 반응이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생들이 하갯길에 들리는 공간이다. 지역 노인들은 초대했으나, 재방문률이 높지 않다.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 진행 방식이 과제이다.
3.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나아갈 방향 - 지역사회에 가결한 텍스트의 요소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맥락으로 자리함을 목표로 혼자 기획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민의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론

민간주도형 지역문화예술공간은 이웃과의 관계망 역할이기에 도시 재생,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활성화하기 적합한 공간이다.

- 1) 문화예술자원지도와 같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개별 예술공간의 수요보다 클러스터형으로 수집된 다양한 예술공간에 대해 수요가 더 많다는 것에 주목하여, 정부주도형 공간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형 공간이 포함된 문화예술자원지도가 필요하다.
- 2) 지역 예술 문화 공간 자체에 대한 시 차원, 정부 차원에서 지지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콘텐츠의 기획 및 실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고정적인 예산 지역 연계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연대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 3) 금전적인 지원에 더해, 양질의 예술을 위해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 여러 교육이 필요하다. 예술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운영자이기에 관련 교육은 필수이다. 특히나, 전문 분야가 아닌 홍보 마케팅 분야와 예산 운용 관련 교육을 통해 공간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
- 4) 이웃이 원하는 콘텐츠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형 연계 프로그램과 만족도 조사가 역시 필요하다.